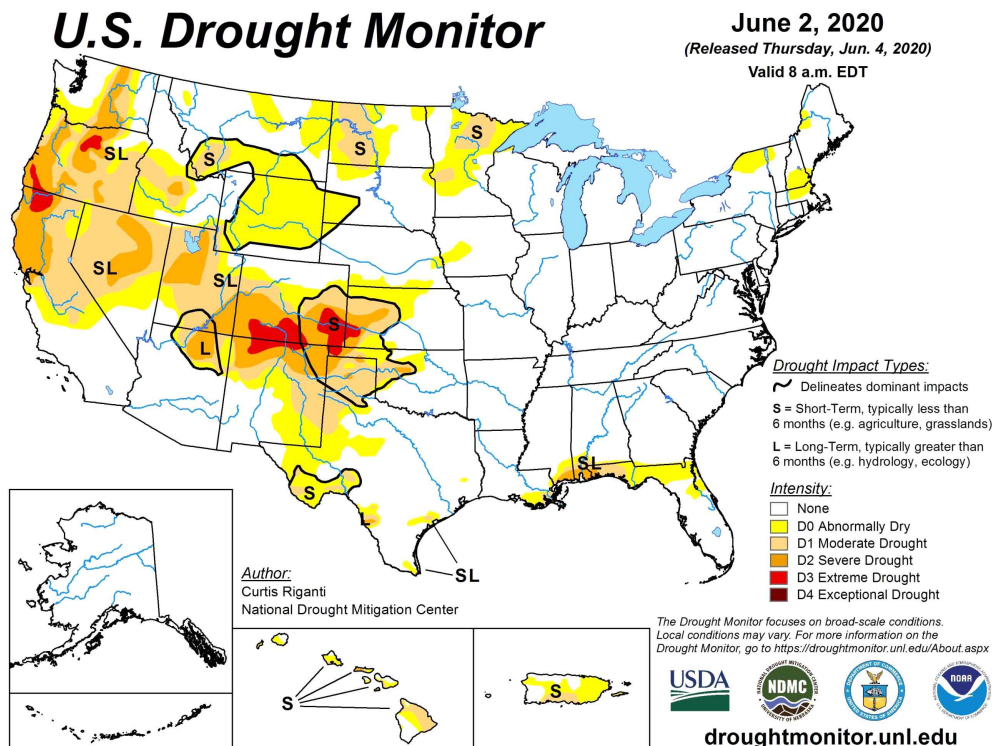


6월 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23)

□ 미국 기후 현황(5/31~6/6)

나라의 여러 곳에 내린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가벼운 강수량의 비가 북부 평원부터 중서부까지 그리고 남부의 많은 곳에 대체로 유리한 재배조건을 유지해주었다. 뜨겁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중부와 남부 평원의 일부 지역에서 표토의 보유 수분량을 감소시켜서 겨울 밀의 성숙과 수확을 재촉했지만 방목지와 초지 및 천수답 여름 작물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대부분에도 뜨겁고 건조한 날씨가 만연했다. 사실, 계속 서늘했던 (평년보다 5° F 가량 낮은) 뉴 잉글랜드 북부와 주변을 제외하면 나라 전체적으로 기온이 평년 부근이나 평년보다 높았다. 인터마운틴 웨스트에서부터 옥수수 벨트 서부까지 많은 곳들에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10° F 이상 높아서 여름철 같은 열기가 인상적이었다. 한편, 주 후반기에 소나기와 지역적으로 심한 뇌우가 북부 평원을 가로 질러 확장되면서 북서부에 유익한 비가 내렸다. 이 주간에 내렸던 가장 심한 강우 중에 얼마가 멕시코만 연안을 따라서 그리고 그 근방에서, 남부 텍사스에서 플로리다까지 내렸다. 루이지애나부터 플로리다까지 내린 비는 열대성 폭풍 크리스토팔이 접근해온 것과 일부 관련이 있었는데, 중미와 남동부 멕시코 일부를 적신 후에 내륙에서 2일 이상 (6월 3~5일) 보내다가 멕시코 만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이동했다. 최종적으로 크리스토팔은 6월 7일, 미시시피 강 입구 근처에 상륙했다.



□ 농업 현황 요약(6/1~6/7)

나라 대부분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덮였다. 대평원의 많은 부분들, 로키 산맥, 남서부, 미시시피 계곡 상류와 중류는 기온이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사스, 네브라스카 및 사우스다코타 일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10° F 이상 높았다. 반면, 플로리다, 뉴 잉글랜드, 태평양 북서부, 남동부 해안 지역 및 텍사스 남부 지역 일부는 주목할만하게도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다. 나라의 대부분은 평년보다 건조했지만 플로리다의 많은 부분, 멕시코 만 연안, 대서양 중부, 로키 산맥 및 텍사스 남부는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비가 플로리다와 멕시코 만 연안을 따라 내렸는데 어떤 곳들은 5인치 이상을 기록했다.

□ 세계 기후 현황(5/31~6/6)

■ 유럽: 폭풍 전선이 대륙의 높은 북동부에 막혀서 멈춰 서 있다가 서쪽으로 표류하면서 북유럽과 중유럽 전역에 서쪽으로 확장되는 소나기가 발생했다. 느리게 움직이는 이 폭풍 전선과 관련하여 내린, 이 비의 총강수량은 10~40 mm였고 이 비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및 저지대 국가들에서 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보리, 밀, 유채를 위해 수분 공급을 개선해 준 한편 동부의 재배 지역들에서는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해 유리한 조건들을 유지해주었다. 더욱이,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도 여름 작물들에 대한 계절 초 전망은 여전히 좋았다. 그러나, 지난 주에 영국 남부에 내린 비 (5~22 mm)가 심하게 발생한 가뭄 영향을 차단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90일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종실비대 및 성숙기 중에 있는 겨울 작물들은 회복 가능 시점을 이미 지나버렸다. 영국과 비슷한 정도로 90일 강수량이 부족한 헝가리도 최근의 수분 개선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서유럽과 북유럽의 많은 곳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대 2° C 높았고 남동부의 재배 지역은 수치가 평년보다 최대 3° C 낮아서 겨울 작물의 성숙과 여름 작물의 발달을 다소 늦추었다.

■ 구소련(서부): 광범위한 소나기가 계속되면서 남부에서는 종실비대 중에 있는 겨울 작물들에 대한 전망을 더욱 개선했으며 북부에서는 생식 중에 있는 겨울 작물들을 위해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해주었다. 남러시아에는 3주 연속 소나기와 뇌우 (5~45 mm)가 발생하여 생식 및 종실비대 중에 있는 겨울 밀을 위해 수분 공급을 더욱 개선했다; 밀의 생식기 및 초기 종실비대기와 일치하고 있는 30일 총강수량은 평년의 100~150%였다. 서부 러시아의 다른 곳들의 수분 조건들은 생식 중에 있는 겨울 밀에게 여전히 유리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더 서쪽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지역들에는 적당하거나 강한 비 (5~55 mm)가 내려서 생식기-종실비대기 중에 있는 겨울 보리, 밀 및 유채를 위해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보유량이 유지되었다. 다만, 오데사 (우크라이나의 남서부)와 몰도바 남부에는 지역적으로 건조한 조건들이 계속되었다. 북쪽으로 러시아의 중앙 구역에 적당하거나 과도한 비 (지역적으로 100 0mm 이상)가 내려서 지역적 홍수를 일으켰을 수는 있지만 영양기 중에 있는 봄 곡류들과 여름 작물들을 위해서는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우크라이나에서부터 벨라루스와 러시아 북서부까지는 기온이 선선했던 (평년보다 1~4° C 낮음) 반면, 대조적으로 가장 동쪽의 경작지는 수치가 평년보다 최대 3° C 높았다. 하지만 동부의 온기 (낮은 30도대까지의 최고 기온)가 영양기 중에 있는 봄 밀과 보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동아시아: 중국 남부는 일주일 동안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100 mm 이상의 비가 내려서 영양기 중에 있는 여름 벼를 위해서 적당한 수분 공급을 유지했다. 한편, 북동부에는 소나기 (25~75 mm)가 광범위하게 내리면서 영양기 중에 있는 옥수수와 콩을 위한 토양 수분을 상당히 상승시켰다. 대조적으로, 황하와 양쯔강 사이의 날씨는 대체로 뜨겁고 건조하여 밀과 유채의 건조를 도와주었다. 더 먼 서쪽으로 신장에서는 기온이 평균보다 높고 스트레스성 열이 없어서 면화의 발달을 촉진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한반도와 일본 전역은 덥고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하여 영양기 벼에 대한 관개 수요를 증가시켰다; 하지만 전반적인 수분 상태는 여전히 좋았고 특히 북한은 작년보다 더 좋았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밀과 기타 최근에 파종한 겨울 작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양 수분을 감소시키고 있었다. 반면에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및 호주 남부에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 25 mm 가량)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의 활착에 도움을 주어서 이른 철 수확량 전망을 양호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밖에 밀 벨트 지역 내에서 서호주는 지난 주에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로 날씨가 덥고 햇볕이 많이 들어서 밀, 보리 및 캐놀라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서호주는 기온이 평년보다 더 따뜻했고 (평년보다 1~3° C 높음) 호주의 남부와 동부는 평년 부근이거나 평년보다 다소 더 시원했다 (평년보다 최대 2° C 낮음).

■ 아르헨티나: 날씨가 전반적으로 건조한 양상을 보이면서 아르헨티나 중부에서는 가을 야외 작업이 빠르게 진전되었다. 북서부 농업 지역 (살타 내부와 주변)에서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산타 페와 엔트레 리오스의 북쪽 구역들로부터 파라과이 동부까지 뻗어있는 북동부의 많은 곳에는 다시 소나기 (총강우 10~50 mm)가 내렸다. 후기 단계의 면화 수확 작업을 포함하여 야외 작업 속도를 늦추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 수분은 겨울 곡류를 위해서 환영을 받았다. 국내 농업 지역들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지배적이었는데, 코리엔테스처럼 먼 북쪽에서 낮 최고 기온이 20° C 이하에 머물렀다. 중부와 북서부의 많은 생산 지역은 동결도 흔하게 발생하여 겨울 곡류의 성장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다른 작물들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6월 4일 현재, 옥수수는 66 % 수확되어 작년 (58%)보다 빨랐고, 콩은 거의 다 수확되었다 (98 %). 면화는 86 % 수확되어 작년 (57%)보다 거의 20 포인트 빨랐다. 마찬가지로 밀 파종은 작년 속도보다 훨씬 앞섰다 (작년의 16% 대비 30% 파종).

■ 브라질: 남부의 여러 주요 생산 지역에 내린 소나기들은 미성숙 옥수수와 출현-영양기 중에 있는 밀에게 유익했다. 파라나에서 리오 그란데 도 술까지 내린 강우 총량은 10~25 mm 였는데, 산발적으로 다소 가볍게 내린 (대체로 5 mm 이하) 이 소나기들은 북쪽으로 리오 그란데 도 술과 상 파울로까지 내렸다. 마토 그로소 도 술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소나기들이 내린 곳들의 기온은 평년 부근이나 평년보다 낮았는데 좀 더 선선한 남부 지역들 중 몇 곳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높은 섭씨 10도대와 낮은 20도대에 머물렀다; 한편 밤 최저 기온은

지점에 따라 5° C 이하로 떨어졌지만 동결은 보고되지 않았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 2% 수확되었고 남은 작물의 72%는 종실비대기-성숙기 중에 있었다; 밀은 75% 파종되었다. 6월 4일 현재, 리오 그란데 도 술에서 밀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브라질의 중부 및 북동부 내륙의 옥수수 및 면화 생산 지역들은 계절적으로 더 건조한 날씨가 널리 퍼졌고, 북동부 해안에만 계절성 소나기들 (10~25 mm 또는 그 이상)이 내렸다. 낮거나 중간 30도대까지 올라간 낮 최고 기온은 작물들의 빠른 발달을 촉진했고 마토 그로소에서는 작물들이 수확 초기 단계 중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6월 5일 현재 4% 완료).